

# “의궤반환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문화재찾기 해문 스님,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 출판

문화재 환수 운동을 펼쳐 온 해문 스님이 <조선왕실의궤>의 반환결정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스님과 문화재 제자리찾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의 출간기념 및 문화재 환수 관련 기자 간담회를 8월 4일 중앙신도회 교육관에서 열었다.

이번에 출판된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은 의궤 환수 운동에 대한 대국민 최종보고서다. 한일협정 체결 후 양국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문 스님과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이런 장벽을 깨고 의궤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에서 해문 스님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장감 넘치는 문체는 독자들에게 딱딱한 보고서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전한다.

이 책은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를 찾기 위한 만행의 길'이라는 프롤로그로 시작된다. 그만큼 해문 스님은 <의궤 조선의 되찾은 보물>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상 가장 슬픈 장례식 기록으

로 평가받고 있는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는 1898년 명성황후의 장례식 과정을 담고 있다.

명성황후 시해 후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치를 겨를이 없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뒤 국장 절차를 착수하나 2년 동안 장례는 치러지지 못했다. 명성황후의 국장은 조선왕조 500년의 마지막 왕비의 국장이며 대한제국 선포 후 최초의 국장이었다.

해문 스님은 저서에서 “죽은 것도 모자라 장례식 기록마저 약탈해 간 일본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우리는 왜 명실상부하게 우리 것이 확실한 유물마저 당당하게 찾아오지 못했던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 책은 또 '조선왕실의궤환수위의 탄생' 편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환수와 환수운동의 준비과정, 환수를 둘러싼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환수위는 1년 여의 걸친 자료조사를 토대로 구성됐다. 스님은 당시 조직위의 구성을 봉선사의 '진일과 재산환수법의 국회 통과 운동'에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사건이 종결되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했고, 이런 의지가 조선왕조

실록 환수위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2006년 7월 도쿄 대학이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본을 돌려주면서 마무리 됐다.

'조선왕실 의궤환수운동'은 1막과 2막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제1막은 조선왕실의궤의 일본 공내청 소장 사실이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고 해문 스님이 공내청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스님은 이후 유네스코 본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일본 외무성 등을 방문하며 환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반환 과정 현장감 있게 서술 고려 석탑의 반환 위해 방안

제2막에서는 일본 총리에게 남북 공동요청서를 제출하고 제2차 평양 방문, 18대 국회 처리안 등의 과정이 담겨 있다. 조선왕실의궤는 결국 지난 해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식민 지배 사과와 의궤 등 도서 반환' 담화를 발표하고 올해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 반환을 앞두고 있다.

해문 스님은 “이 책에는 의궤 환수를 위해 묵묵히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흔적이 담겨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 날 간담회에서 일본 오쿠라 호텔에 보관된 평양 율리사지 석탑과 이전 5층 석탑의 반환 할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기념하는 '일파만파 포토존' 행사가 인사동 복인사마당에서 8월 3일 마련됐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천연 염색, 연꽃차 시음, 부채 만들기 등 각종 행사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동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8월 10일 일본 오쿠라 호텔을 방문해 호텔 박물관이 소장 중인 평양 석탑과 이전 석탑의 반환 요청서를 전달한다.

이들 단체는 올해 3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본 오쿠라 호텔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운동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오쿠라 호텔측에 2기의 석탑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도쿄 지방 재판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던 오쿠라 호텔측이 최근 만남을 요청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해문 스님은 이 날 만남에서 조선 불교도연맹의 위임에 의해 평양 율리사지 석탑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과 이전 석탑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해결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님은 “남북 불교계의 공동요청은 이 문제가 단순히 문화재 반환문제를 넘어 남북문제와 조일수교 문제까지도 확산될 수 있음을 말한다. 오쿠라 호텔측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

##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 자비의 전화 20년 봉사자 이석진씨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마음을 닫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 보살(49·사진)은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비의 전화'에서 전화상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 보살은 20년 전과 비교해 삶이 윤택하고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 많은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석진 보살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보살 스스로도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 많은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석진 보살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보살 스스로도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 많은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석진 보살은 주말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 시설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어렵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애쓴다. 애써 참은 눈물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린다.

### 20년동안 9천 시간 활동

### 주말마다 복지시설 봉사

###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

이석진 보살은 자비의 전화 3기 상담원으로 20여 년간 꾸준한 자원봉사로 활동해왔다.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3기로 출발했으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7명 정도. 남은 3기 중 이석진 보살의 활동시간은 다른 동기들보다 월등하다. 이 보살은 2010년 10월 기준으로 2369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9000시간이 넘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제18회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수상했다.

“전화하자마자 우는 사람도 많고,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대화상대가 되어주고, 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원활한 전화 상담을 위해 한 사람과 긴 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석진 보살은 한 사람의 상처라도 제대로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장시간 통화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람을 향한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다.

박기범 기자

## 온 가족이 병마에 시달리는 슬기네

### 부녀(父女)는 입원 치료 중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환우로 윤영수(남·56세), 윤술기(여·26세) 부녀를 선정했다. 10년 전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아버지, 선천적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큰딸, 지적 장애를 가진 둘째딸, 우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 막내아들, 혼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월 30여만 원을 벌고 있는 어머니.

다섯 식구에게 불행은 멈추지 않았다. 6월 아버지 윤영수 씨가 척추농양으로 수술하고 입원 중이며 큰 딸도 같은 병원에 급성 신부전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한사람의 치료비도 감당하지 못



입원 치료중인 첫째 딸 윤술기 양.

할 형편에 부녀가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감당하기 벅거운 이 가정에 불치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천진영 기자

## 군종교구 논산훈련소 사경불사 추진

군종교구가 20%의 공정 진도를 보이고 있는 호국연무사의 원만 불사를 위해 사경불사를 추진한다.

군종교구는 현재 총 불사비 120억 원 중 약 70억 원(약정금 포함)을 모았다. 하지만 2012년 부처님오신날 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연무사 불사에는 6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종교구는 연무사 법당 내 부처님에게 사경집을 봉안, 동탑 대종의 공덕을 영구히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법당 안에는 삼존불과 원불 1560기를 봉안할 계획이다.

교구장 장광 스님은 8월 3일 “한국불교의 미래인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사경 수행으로 공덕을 쌓고, 국군장병의 안녕을 기원해 달라”



논산 육군훈련소 조국연무사 신축불사현장.

고 말했다. 한편, 2010년 11월 착공한 호국연무사는 4만6000㎡의 대지에 연면

적 4680㎡(1415평) 규모로 최대 5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02)797-7266 노덕현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고품질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 DX-707 스탠드 마이크

• 법당 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정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특징 : 지체 제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법패 · 작법무-  
**불교예술포럼**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성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수취인 장학금 지급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